

귀국 학생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 논의

양영희 전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귀국 학생의 선행 연구 검토
- III. 바람직한 질적 연구를 위한 논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귀국 학생에 대한 국어교육의 질적 연구를 반성적으로 점검하여 앞으로 취해야 할 연구 방향을 가늠해 보는 데 있다. 귀국 학생을 범박하게 정의하면¹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현지의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 들어온 귀국 학생은 15,076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귀국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1989년에 시작되어 1997년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귀국 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귀국 학생 특별반을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본격화되었다.² 이와 함께 교육과정

1 ‘범박하게’로 표현한 이유는 ‘귀국 학생’의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가.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 중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 (교육부)

나. 귀국 학생은 귀국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별도의 집중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서울시 교육청 귀국 학생 웹서비스)

다. 귀국 학생이란 ... 적어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보내고 ... 귀국하여 한국의 교육제도 면에서 면학을 계속하는 자.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

(가), (나)는 박애스더(2014: 236)에서 가져왔고 (다)는 강란혜 외(2005)에서 가져왔다. 여기서 (가)가 넓은 의미의 정의라면 (나), (다)는 좁은 의미의 정의라 할 수 있다.

2 김창호(2002), 송영복(2004) 등을 참조할 때, 1989년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귀국자녀 ‘특별적응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2년 서울사대

에서는 7차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³

국어교육학회에서는 제59회 학술대회 주제를 ‘귀국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국어교육’으로 정하였다. 귀국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국어능력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어교육학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필자에게 ‘질적 연구’가 세부 주제로 할당되었다. 이 주제는 ① 귀국 학생의 국어사용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해석하거나, ②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국어능력 신장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본고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되겠지만 국어교육학에서의 귀국 학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비유가 적절할 정도로 진무한 만큼 무작정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연구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등을 먼저 생각하고서 본격적인 연구에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본 논의의 취지는 이

부설초등학교에서 귀국 학생을 위한 각 학년별 학급과 무학년 학급을 개설하였다가 1997년에 귀국 학생이 많은 지역에 특별반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 3 가. (재)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7차 교육과정 총론」 4-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 운영)
- 나.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국내 학교에의 순조로운 복귀를 도와야 한다. 또한 귀국 학생 교육을 통하여,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신장시키며, 외국에서 얻은 국제성을 유지, 신장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학교 간 연합을 통해 ‘귀국 학생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는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5-7, 귀국자녀에 대한 지원)
- 다. (21) 학습 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위의 (가)는 「7차 교육과정 총론」의 귀국자녀에 대한 지원 내용이고 (나)는 「7차 고등교육과정 해설(2001: 141)」의 내용이며 (다)는 「2013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지원 항목이다.

려하다.

II. 귀국 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본 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에서 귀국 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귀국 학생의 능력을 회복 혹은 신장시켜야 할 언어가 국어인가 아니면 한국어인가, 둘째 그동안의 논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관점 또는 태도는 무엇인가이다. 전자는 귀국 학생에 대한 논의가 주로 한국어교육학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데서 비롯한 의문이며 후자는 선행 연구를 반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논의의 방향타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1. 선행 연구의 유형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귀국 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는 결코 많지 않아서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어교육학을 비롯한 사회·심리학의 석사학위 논문까지 포함하여도 다음 <표 1>이 전부이다시피 한다.⁴

표 1. 귀국 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

분 야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출처
한 국 어	귀국초등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직관적 판단 ⁵	초등	고현영 (2006)
	귀국 조기 유학생이 학교 적응 언어 문제	양적	중등	이진주 (2011)

4 물론 필자가 조사한 논문이 결코 전부일 수 없으나 그 오차는 근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번 학회 발표에서 이러한 추정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발표자들도 귀국 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편수가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 및 평가 방식 개발을 위한 연구	질적	초등	이영자 외 (2002)
	귀국 학생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의 필요성	개념	포괄	김창호 (2002)
	귀국반 어린이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이론	초등	송영복 (2004)
	초등 귀국 학생의 유형별 수업 사례를 통한 한국어교육과정 적용 양상 연구	질적	초등	정현주 (2014)
	귀국 중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양적	중등	하나리 (2012)
	대화일지 쓰기가 귀국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	양적	외국인 학교 고 급수준	김수경 (2008)
국 어	해외 귀국 학생들의 동일 기능 관계적 사용 실태 분석과 진단	양적	초등	김명광 (2007)
	귀국 초등학생의 쓰기 오류 실태에 관한 연구	직관적 판단	초등	김대희 (2007)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양적	중등	박주용 (2011)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특별 교육 방법 연구	양적	고등	이재모 (2002)
	해외 귀국 학생들의 문장 오류 분석	양적	초등	김명광 (2008)
사 회 적 으	해외 장기체류자 자녀 귀국 후 학교적응 훈련 프로그램	질적	초·중 등	김영진 (1994)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 귀국 학생을 지도하는 초등교사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질적	초등	홍영숙 (2011)
	귀국자녀교육의 실태분석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양적+이론	초등	강란혜 외 (2005)
	귀국 학생의 중·고등학교생활 회고담에 관한 질적 연구	질적	중·고 등	박에스터 (2014)

<표 1>에서 귀국 학생의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고 국어교육학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질적 연구에 대

5 여기의 '직관적 판단'은 연구자가 예문의 오류나 정확도 등을 그의 직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한 논의가 국어교육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한 질적 연구가 한국어교육의 학위 과정에서 두 편 정도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새삼 귀국 학생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어로 간주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위의 표를 참조할 때,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국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그러나 필자에게 그것은 국어로 판단된다. 우선 그들의 모국어가 국어라는 점과 국어를 해외 거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잠시 중단 기간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 귀국 후에 적응해야 할 언어 환경 역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아닌 국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현재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은 각각 고유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인식된다. 그런 만큼 그들에게 교육해야 할 언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점이 바로 본격적인 논의 전에 그들의 언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요컨대 귀국 학생에게 재교육시켜야 할 언어는 국어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도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표 1>에서 한국어교육 대상으로 접근한 대부분의 논문들도 사실은 국어교육학적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정현주(2014), 송영복(2004)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국어 교과서’를 활용하거나(고현영, 2006; 하나리, 2012), 국어사용 능력을 양적으로 평가(이진주, 2011)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도 국어교육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이런 경향은 ‘귀국 학생’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먼저 연구자들은 그들이 국어사용 단절로 인하여 언어 능력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언어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귀국 학생 특별반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 학교에 편입하여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국어 교재를 가지고 국어교육의 교수

· 학습방법으로 교육을 받으므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업 관찰이나 문서자료 분석은 한국어교육이 아닌 국어교육 관점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연구 진행상의 특성이 위와 같은 모순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언어는 한국어가 아닌 국어로 판단된다.

2. 질적 연구의 반성적 검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경향에 도리어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 <표 1>에서 확인되듯이 귀국 학생 언어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논문이 모두 한국어교육학에서 이루어져서 그나마 이들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공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영자 외(2002)에서 이루어진 질적 연구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1) 질적 연구 사례

가. 이영자 외(2002)

- ① 연구 목적: 귀국 학생(귀국자녀)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의 설계와 평가 방식 제안
- ② 연구 방법: 한국어 교육과정을 소규모로 실험 운영하여, 학습자-학습자 간의 사회적 교류와 참여의 역동성을 분석
- ③ 실례 및 해석

<실례>

1. 승환: 그거 뭐였지? 우물거리는 거?
2. 선영: 울상
3. 승환: 울상? 우물상? 울거지?

6 필자로서는 이영자 외(2002)가 선행 연구 가운데 질적 연구 방법을 그나마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구체적인 대상을 참여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대화를 세심하게 기록하여 그 안에서의 학습자 간 역할을 분석하여 하였다는 생각에서 그러하다. 이점이 바로 필자가 반성적 논의라는 중요한 지점에서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이다.

4. 선영: 울꺼지상?
 5. 승환: 맞아? 울꺼지상?
 6. 선영: 지난 번에 똥똥지 만화에서 나왔지?
 똥똥지가 울려고 하니까, 누구지? 옆에 있던 개가 누구지?
 7. 승환: 아 알았다. 우거지. 우거지상. 울꺼지상이 아니라.(웃음)
 8. 진이: 우거지
 9. 선영: 정말?
 10. 승환: 우거지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울꺼지? 너 울꺼지?
 11. 수진: (선영에게) 지난 번에도 울었어. 우는쟁이.
 지난번에 승철이 집에서 자기 틀렸다고 울었어.
 12. 승환: 아니야 집에 승철이가 먼저 갔다고 울어.
 13. 수진: 아니야
 14. 승환: 맞아.
 15. 진이: 아, 그만 해. 울쟁이던, 울거지던. 우기던
 아, 우기는 거 뭐지? 승환이처럼
 16. 승환: 우기상. 선생님 우기상도 있어요?

<결론>

- ① 귀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은 (1) 교사 주도적 수업보다 학생 주도적 수업, 즉 학생 스스로 다른 학습자와의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업, (2) 학습자 스스로 다른 학습자와의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업, (3) 이로 인해 학습자가 학습의 구체적인 내용 이외에도 인간적 성숙과 자아의 확대로 이끌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평가 방식에 대해 ... 학습자 참여 방식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평가 방식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되, 학습자들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시피 위의 연구는 귀국 학생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의 설계와 평가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참여관찰’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⁷ 굳이 이런 결론

7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였다.

예 (1)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예 (2)는 사회적 프레임의 모티브가(10째 줄) 생산적 프레임의 모티브를 압도하는 것(9째 줄)을 보여준다. 그러나 방해자의 체면이 이번에도 역시 살려진다(15째 줄). 왜냐하면 생산적 프레임과 사회적 프레임은 서로가 서로를 내포할 수 있고(11, 15, 16째 줄), 따라서 방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생산적 프레

이 귀국 학생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교수·학습방법이며, 평가 방식인가라는 의문은 제기하지 않기로 하자. 그 대신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조용환, 1999: 20)’에 입각해 있으므로 이처럼 대화 장면을 그대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는 추정에만 의미를 두기로 하자. 사실 귀국 학생에 대한 연구가 전문한 현 상태에서 이러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 방법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귀국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시할 방안을 구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은 단선적인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에 객관성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권장되는 삼각측정(triangulation)⁸을 이용한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 즉 위의 실험과 다른 교수·학습 방식으로 운용되는 교실의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여 위의 결과와 서로 비교한 후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 안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프레임 사이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체면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학습자 참여 방식의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영자 외, 2002: 250~251)

여기서 ‘사회적 참여 프레임’은 ‘간접, 참여 중단, 휴지’ 등과 같은 수업의 방해요소에 해당하고, ‘생산적 참여 프레임’은 ‘과제 협동’과 같은 수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요소에 해당한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안에서 위의 <해석>을 분석하면, 결국 수업 초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학습자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사회적 참여 프레임이 전적으로 수업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8 삼각검증으로도 일컫는데, Glesne(2006), Mertens(2005)등을 참고한 옥현진(2010: 254)의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삼각측정은 기하학에서 삼각형을 그리는 원리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다. 미지의 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기지의 두 지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질적 연구에서 삼각측정이란 연구를 통해 찾고자 하는 이론(미지의 지점)을 최소한 둘 이상의 데이터 소스(기지의 두 지점)로부터 찾아가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연구하고자 할 때, 완성된 글 결과물 외에도 설문 조사나 인터뷰,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김혜연, 2014: 385, 각주 5)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는 대로 질적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수 행위를 학생의 학습 행위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동구성이라는 협동 작업으로 접근(한철우 외, 2012: 71)’하는데, 위의 교실에서 교사의 교수 행위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관찰자의 관점에만 입각해 있는 상황이어서, 극단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진은 ‘7년 간의 정규 초등학교 교육 경험을 가진 교사’를 수업에 참여시킨 후에 수업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방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정작 수업의 결과물로 제시한 위의 <실례>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이 점은 다른 장면의 <실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주도적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⁹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업 현장에서 참여교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교사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될 때 위의 연구 결과는 객관성을 보장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귀국 학생의 효율적인 평가 방식 제안’이라는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¹⁰ 그러면 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음 장에서 논할 ‘연구 목적의 명료화와 연구 방법의 구체화’가 부족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

9 발표회에서 ‘참여 교사’의 역할이 해당 논문에 제시되어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후 해당 논문을 다시 확인한 결과 토론자의 견해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해당 논문에 ‘참여교사’의 교육 경력과 교육관 등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이영자 외, 2002: 247). 그러나 이 교사의 역할이 수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해석해내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해당 논문의 본질적인 오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론자의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10 논지 전개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정된다. 여하튼 한 편의 선행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오류¹¹를 피하고자 하는 필자로서는 귀국 학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바를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Ⅲ. 바람직한 질적 연구를 위한 논의

전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국 학생에 대한 국어교육의 질적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그러면 왜 질적 연구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구할 수 있다.

(2) 가. 삼라만상의 이러한 근원적인 복잡성 때문에 연구자들은 맥락을 어느 정도 단순화하고, 관계의 한계를 잠정적으로 설정하고서 연구를 진행한다. ... 질적 연구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 질적 연구가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조용환, 2002: 20)

나. 질적 연구의 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대화의 과정이다. 대화는 대화 상대자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현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세계보다는 **참여자의 세계가 더 중시되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세계를 학습하는 겸허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한철우 외, 2012: 79, 각주 14)

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다 ‘사람’이다. 즉 연구에 **참**

11 정현주(2014)는 초등 귀국 학생의 한국어교육과정 적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과정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수업 참여 관찰,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등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그 문제점을 학급 운영의 구조적인 면과 실제적인 학급 운영의 면에서 구하였는데,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굳이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여하는 사람 모두가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취급된다. (조용환, 2002: 22)

위는 양적 연구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설명한 내용들로, 필자가 강조한 부분이 귀국 학생에 대해 연구자 혹은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라 생각한다. 주지하는 대로 귀국 학생의 배경은 개인마다 다르다. 즉 그들이 해외에서 거주한 나라와 기간이 다르고 거주하는 동안의 국어사용 정도도 다르다. 그런 까닭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그들의 내면에 형성된 언어·학습 문화가 다르며 국어능력도 다르게 된다. 이렇게 배경이 다른 그들이 귀국하여서는 대부분이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동일한 맥락(교실)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예비 면담을 실시한 3명의 귀국 학생 가운데 2명이 처음 1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²

소수라는 이유로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거나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문화에 적응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교육이 지향할 바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의 대부분이 ‘말이 통하지 않음’에 있다. 이 점이 바로 국어교육학계가 이들에게 주목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들의 단절된 국어능력을 최대한 빨리 복원시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한편 국어 능력(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어교육학계의 역할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이들의 국어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마

12 필자가 예비 면담한 귀국 학생은 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처음 1년은 학교 생활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으며, 1명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는 해외에서 거주할 때의 국어사용(학습)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자의 두 학생은 오누이 사이로 일본에서 7년 거주하다 귀국하였는데, 귀국하기 전에 국어를 따로 학습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학생은 러시아에서 5년 거주하다 귀국하였는데, 그의 엄마가 집에서 직접 국어 학습(어휘 중심)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과외 형식으로 그것을 학습시켰다고 한다.

련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은 화자의 내재된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 단절의 기간 정도에 따라 그것의 기능 보유 여부도 달라지는 까닭이다. 여기에 귀국 학생의 국어교육 방법을 질적 연구로써 구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주지하는 대로 그것은, 일반화되고 양화된 결과를 중시하는 양적 연구방법과 달리 대단위가 아닌 소수(극단적으로는 1명)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보여지는 그대로를 기술·해석하는 연구방법이므로 이에 입각하면 다양한 배경을 지닌 귀국 학생의 개별적인 국어 현상과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기술·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질적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연구 태도를 생각해 보는 한편 귀국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질적 연구방법으로써 마련해 보기로 한다.

1. 연구 방법의 구체화와 목적의 명료화

연구방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일 때 연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말이다. 국어교육 현상과 국어 활동 현상이라는 분명한 연구 분야를 구축하고 있는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제된 연구방법론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 연구 분야를 타 학문 분야들에 침식당하고 있다(서혁, 2012: 256)”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¹³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질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3 이 외에도 연구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윤희원(2001), 천경록(2014)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기서는 한철우 외(2012: 머리말)의 다음을 인용하기로 한다.

‘최근 국어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어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 그러나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연구물들이 모두 높은 질적 수준을 가졌다고는 쉽게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 연구 방법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체계화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1990년대 이후로 ... 그동안 국어교육학계에서 축적되어온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적 제안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혹은 실행되어야 하는지)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해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옥현진, 2010: 249)”으로 이해된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적 연구의 ‘주관성’¹⁴과 ‘일반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현진(2010)에서는 연구 타당성의 제고 방법을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으로 나누어 전자의 측면에서의 제고 방법으로 ‘삼각측정,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연구 참여자의 점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질적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곧 연구의 생명인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어교육의 질적 연구는 어떠한가. 이미 우리는 귀국 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연구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연구 방식을 선택하고 자료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점을 문제시 하였다(2장 참조). 물론 2편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여 그것을 현 귀국 학생에 대한 질적 연구의 문제점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하기도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미 선행 연구의 부재를 확인하면서 귀국 학생의 질적 연구에 관한 한, ‘이제 시작’이라는 판단을 내린 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이유에서 ‘연구 방법의 체계화와 연구 목적의 명료화’를 새삼 거론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가져야 할 상식적인 태도를 굳이 여기서 이렇게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귀국 학생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제 시작 이므로 연구자가 이와 같은 태도를 분명히 할 때 그것의 전망 또한 밝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하지 않음은 다음의 인용문을 살피는 과정에서 관찰된다.

진행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한철우 외, 2012: 머리말)

14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속성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질적 연구자의 목적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성과 정체성이 연구 활동 자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파악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한철우 외, 2012: 95)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3) 국어교육학의 질적 연구 문제점

- 가. 국어교육학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의 내부자적 관점을 포착하고 이를 기술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 나. 대부분의 연구가 ‘전형적 사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국어교육학의 일부 질적 연구가 교사의 수업, 모둠 활동, 직장 등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들 현장의 맥락을 생생하게 기술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 라. 처음 세운 가설이 구체적인 맥락과 자료를 만나 얼마나 유연하고 발전적으로 재구성되었는지, 자료가 가설의 확정이 아닌 가설의 생성에 활용되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국어교육학의 질적 연구는 아쉬움이 있다.
- 마. 국어교육학의 질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의 해석의 목소리를 듣기는 힘들다. 자료를 변환하는 분석 층위에 머물 뿐, 보다 넓은 맥락 즉 국어교육 현상을 일반으로 설명하는 논리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해석의 논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위는 한철우 외(2012: 78~87)에서 ‘질적 연구다움’을 설명하면서 국어교육학의 질적 연구에 대해 반성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태도는 질적 연구 방법의 피상적인 이해로 인한 ‘참여관찰’의 남용(가)과 극히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사례 적용(나), 자료 분석에 대한 미숙한 기술과 해석(다), 선행 연구에 의지한 자료 분석 틀의 고착화(라) 등으로,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교육의 질적 연구는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교사의 수업이나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참여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그저 단순하게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간주한 데에 있지 않나 한다. 이제 막 귀국 학생에 대해 질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반성인 것만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편으로 면담과 상담 기법을 숙련하고 해석의 주관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얻은 질적 연구 방법이 연구자에게 내면화되었을 때 연구 목적을 분명히 명시할 수 있고, 목적한 바

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 방식을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가 지녀야 할 태도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반성이 국어교육의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지, 귀국 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했다시피 귀국 학생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인 까닭에 거기서 노정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것으로 또 범한 것으로 파악된 위와 같은 점들을 미리 살펴서, 이후 본격적인 연구에서는 가능한 피해보자는 것이 본 논지의 취지이다.

2. 귀국 학생의 국어능력 평가 도구와 등급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언

현재 우리는 바람직한 질적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가져야 할 태도로 ‘연구 목적의 명료화와 연구 방법의 구체화’를 제언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귀국 학생의 국어능력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도구와 등급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질적 연구를 위해 귀국 학생 및 그의 부모와 사전 면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면담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사전 면담 개요

면담 기간: 15. 07. 01~15. 07. 30

면담 대상: 일본 생활 7년, 귀국 2년 차의 귀국 학생1, 귀국 학생 2, 그의 어머니(현 광주시 거주)

러시아 생활 5년, 귀국 1년 차의 귀국 학생 3, 그의 어머니(현 서울시 거주)

특이 사항: 귀국 학생1과 귀국 학생2는 오누이 관계로 일본에서는 가정에서만 국어를 사용함.

귀국 학생 3은 러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어 학습을 함.

(5) 사전 면담 내용 정리

가. 편입 기준
① 부모와 자신이 평가한 국어 능력과 연령 (일본 생활 7년, 귀국 2년 차: 귀국 학생1, 2)
② 연령 (러시아 생활 5년, 귀국 1년 차: 귀국 학생 3)
나. 편입 기준에 대한 불만
① 아쉬움이 있음.(귀국1·2·3, 어머니)
나-1. 왜 아쉬움이 있는지?
① 자신(어머니)의 국어능력으로는 또래보다 2학년 아래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나이를 고려하여 또래보다 1학년 아래의 학년에 편입하게 됨.
②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국제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중학교로 입학하기를 희망하였음.(귀국 3)
다. 학교생활의 적응은 어떠한지?
① 1년 동안 힘들었음(귀국1,2)/ ② 곧바로 적응했음(귀국3)
다-1. 적응하지 못한 이유?
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귀국1,2)
다-2. 적응한 이유?
① 언어가 통하고, 사교적이어서(귀국3)
라. 국어 수업이 재미있는지?
① 어려워서 재미없음.(귀국2)/ ② 그런대로 괜찮음(귀국1)/ ③ 재미있음(귀국3)
마. 국어의 어떤 영역이 제일 어려운지?
① 쓰기(귀국1,2,3) ② 맞춤법(귀국1,2) ③ 문법(귀국3)
바. 국어 수업에 바라는 점?
① 재미있고, 쉽게(귀국1,2,3) ② 문법을 좀더 쉬운 용어로(귀국3)

여기서 국어사용 능력이 학교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귀국 후의 국어사용 능력은 해외 거주 기간, 거기서의 국어 학습 유무와 상관이 있으며 귀국 학생들은 쓰기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들은 귀국 학생의 한국어교육을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귀국 후 편입 과정에 대한 불만은 면담 과정에서 새삼스레 확인된 부분이다. 위 (5.가, 나)에서 살펴지듯이 귀국 학생(부모)들은 현재의 편입 제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국어 능력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었다는 이유(귀국 3)에서,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의 이유(귀국 1·2)에서 그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귀국 학생들

의 국어사용 능력이나 정도를 평가할 도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범주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편입을 권장하면 위와 같은 아쉬움은 소멸될 것이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보다 타당하고 효율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이와 같은 대안을 마련할 근거를 질적 연구 방법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그러면서 전향에서 살핀, 연구 방법의 구체화와 명료화의 가능성을 아울러 타진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굳이 필자가 '근거'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질적 연구 목적이 귀국 학생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하튼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라면 그 방법은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자료를 양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다음 (가)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인 국어능력을 기술·해석하는 한편 (나)와 같은 서술적 설문조사로 귀국 학생의 편제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6) 가. 국어능력 평가: 학생

- ① 문서(헌)자료 분석(학습지, 공책, 읽기, 메모 등): 쓰기, 어휘력
- ② 참여관찰: 말하기, 읽기
- ③ 심층면담: 듣기·말하기

나. 귀국 학생 정책 평가: 학부모, 교사, 학생

- ① 서술적 설문조사: 편제, 국어수업 요구 사항

(6.가)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자료로써 먼저 귀국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그룹화하여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나)의 설문 조사로써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국어과목에 대한 요구 사항, 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 귀국 학생의 국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귀국 학생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귀국 학생의 연령에 따라 편입 학년을 결정하므로 그들이 속할 또래 집단의 국어능력과 대비하면 그들의 국어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 즉 일반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등급화하거나 귀국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등급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문제 등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¹⁵ 다만 우리로서는 그러한 작업 과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위 (6)과 같은 방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6.가)를 보면, 먼저 귀국 학생의 학습지나 공책 등과 같은 문서 분석을 통해서 쓰기와 어휘 사용 현상을 살필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으로써는 말하기, 읽기 등의 현상을 살필 수 있다. 이때 연구자가 직접 수업하는 교사인 경우라면 내부자적 관찰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귀국 학생의 ‘듣기·말하기’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얻은 각각의 자료를 질적 면접의 기술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종합하면 귀국 학생 개인의 국어사용 현상이나 능력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때 앞의 (3)에서 인용한, 그동안 이루어졌던 질적 연구 방법의 문제점들을 유념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맥락에서 관찰하거나 상담하여 얻은 자료를 타당하게 분석할 경우에만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더하여 (6.나)와 같은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 귀국 학생에 대

15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한영목 외(2012: 100)에서 현재 국어교육학의 질적 연구에 반성으로 제시한 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구할 수 있을 듯하다.

국어교육학 질적 연구는 대체로 공간적으로는 소집단, 시간적으로는 특정 사건이나 하루, 공간적으로는 교실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다. 개인으로 좀더 좁혀 들어가거나, 학급, 학교, 사회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국가나 교육청 단위의 특정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어 수업 문화 등이 국어 교사나 국어 학습자의 국어 교수·학습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국어 능력과 국어 태도에 미친 영향이 질적으로 분석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 정책적인 기초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비적으로 실시한 문항을 좀더 세분하여 ‘예, 아니오’의 설문조사가 아닌 피설문자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서술적 설문조사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소단위가 아닌 대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자료가 ‘정책적인 제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자료의 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나 질적·양적 분석 방법이 동시에 사용될 때, 비교·일반화·정책 제언 등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이용숙, 1998: 108)’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역시 질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 자료를 얻은 후에는 양적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귀국 학생에 대한 국어교육의 질적 연구를 반성적으로 점검하여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귀국 학생에 대한 국어교육의 질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그러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그래야 지금까지 국어교육학의 질적 연구에서 노정된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귀국 학생에 대한 연구는 단절된 국어 능력을 복원 또는 신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써 극대화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이 단순화와 한계 설정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맥락 안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 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유한

존재로 취급하며 연구자 세계보다 참여자의 세계를 중시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 귀국 학생의 다양한 배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개별적인 국어사용 현상을 잘 드러내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질적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연구를 수행하기보다 그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인지한 필자는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귀국 학생의 쓰기와 어휘 능력은 학습지, 공책과 같은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말하기와 읽기 능력은 수업을 참여 관찰하거나 내부자적 관찰을 통한 방식으로, 듣기·말하기는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예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귀국 학생의 학교 적응 문제와 직결되는 일반 학교의 편입에 대해서는 서술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서 그들과 그들 부모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책적인 제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귀국 학생의 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게 되면 일반 편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편 귀국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귀국 학생을 위한 온전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논한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귀국 학생만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모색해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본고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귀국 학생을 위한 바람직한 질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데 한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만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차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 본 논문은 2015.11.02. 투고되었으며, 2015.11.02.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란혜 외(2005), 「귀국자녀교육의 실태분석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3, 한국교육과정학회, 289-307.
- 길병휘 외(2001),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교육과학사.
- 김대희(2007), 「귀국 초등학교생의 쓰기 오류 실태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27-59.
- 김명광(2007), 「해외 귀국 학생들의 동일 기능 관계질 사용 실태 분석과 진단」, 『새국어교육』 78, 한국국어교육학회, 5-33.
- 김명광(2008), 「해외 귀국 학생들의 문장 오류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3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41-72.
- 김수경(2008), 「대화일지 쓰기가 귀국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진(1994), 「해외 장기체류자 자녀 귀국 후 학교적응 훈련 프로그램」, 『박문논총』 1, 한국박문학회, 71-108.
- 김창호(2002), 「귀국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122-140.
- 김혜연(2014), 「국어교육 연구에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47, 한국국어교육학회, 377-405.
- 박애스더(2014), 「귀국학생의 중·고등학교생활 회고담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2), 한국교육인류학회, 231-286.
- 박주용(2011), 「귀국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23-48.
- 박혜영(2014), 「국어교육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 탐구」, 『국어교육학연구』 49(2), 국어교육학회, 165-191.
- 서 혁(2012), 「국어교육학 연구의 확장과 연구방법론」, 『선청어문』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55-279.
- 서현석(2008), 「국어 수업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의 동향」, 『국어교육』 125, 한국국어교육학회, 229-249.
- 송영복(2004), 「귀국반 어린이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현진(2010), 「국어교육 질적 연구 동향에 대한 일고찰」, 『국어교육』 132, 한

- 국어교육학회, 249-268.
- 윤희원(2001), 「국어교육학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론 탐색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1-15.
- 이영자 외(2002), 「귀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 및 평가」, 『응용언어학』 18, 한국응용언어학회, 243-256.
- 이용숙·김영천 편(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이유미(2006), 「귀국초등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모(2002),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특별 교육 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주(2011), 「귀국 조기 유학생의 학교 적응 언어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260-287.
- 임미성(2011),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537-568.
- 정재찬(2001), 「국어교육 현상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51-91.
- 정현주(2014), 「초등 귀국학생의 유형별 수업 사례를 통한 한국어교육과정 적용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2002),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하나리(2012), 「귀국 중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철우 외(2012), 『국어교육 연구 방법론』, 박이정.
- 홍영숙(2011),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 귀국학생을 지도하는 초등교사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홀리스틱교육연구』 3, 한국홀리스틱 교육학회, 121-141.

초록

귀국 학생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 논의

양영희

본 연구는 귀국 학생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과정에서 귀국 학생에 대한 연구는 단절된 국어 능력을 복원 또는 신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써 극대화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이 단순화와 한계 설정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맥락 안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 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유한 존재로 취급하며 연구자 세계보다 참여자의 세계를 중시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 귀국 학생의 다양한 배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개별적인 국어사용 현상을 잘 드러내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질적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연구를 수행하기보다 그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인지한 필자는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였다.

핵심어 귀국 학생, 국어능력, 질적 연구 방법, 국어사용 현상, 학습과정, 국어교육

ABSTRACT

A Discussion on the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Competence Improvement for Returnees from Abroad

Yang, Yo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siderations for qualitativ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competence improvement of returnees from abroad. To this end,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storation or enhancement of disconnected Korean language competenc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is goal will be maximized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assertion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which minimizes simplification and limit set, tries to apprehend “as it is” as much as possible in the complicated context, and consi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intrinsic. Qualitative research, thus, is more interested in the world of participants than that of researchers, and this will ensure different backgrounds of returnees, therefore reflecting better individual language use.

To maximize this strength of qualitative research,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prior considerations before conducting a study. This study also suggests clarifying research purpose and choosing concrete research methods which show the goal efficiently to make the most of qualitative research.

KEYWORDS Returnees from Abroad, Korean Language Competenc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Language Use, Learning Process, Korean Language Education